

AI·디지털 기반 과학탐구 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탐구·실험 중심 수업 활성화 추진... 찾아가는 실험실 90개 학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과학 탐구활동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과학탐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에서도 AI·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생 참여형 탐구 수업과 실험활동 지

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급별 과학탐구 선도교원 운영 △학교급별 과학탐구 선도교원 운영 △과학탐구실험 자료 개발 △찾아가는 과학탐구실험실 운영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한 계획이다.

먼저 과학탐구 선도교원 30명을 구성해 운영한다. 선도교원들은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과학교육 포럼과 대한민국 과학교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과학교육 동향

과 우수 탐구수업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탐구실험 자료 개발 △찾아가는 과학탐구실험실 운영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한 계획이다.

특히 사업의 핵심인 '찾아가는 과학탐구실험실'은 선도교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탐구·실험 수업과 교원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총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탐구·실험 프로그램과 실제 적용 사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탐구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교원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체험 중심의 탐구활동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탐구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탐구·실험 중심 수업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IB 월드스쿨 전주아중초

전국 단위 수업공개 행사

전북 최초의 IB 월드스쿨(PYP) 인증 학교인 전주아중초등학교가 전국 단위 수업공개 행사를 열고 IB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전주아중초등학교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IB 연구학교 1차 실증수업 공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북 지역 최초로 IB 월드스쿨(PYP) 인증을 획득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전국 규모의 수업공개 행사로, IB 교육의 현장 적용 사례를 전국 교원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IB 운영 학교 교원과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IB 운영·후보학교 교원, 교육전문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6개 학급에서 진행된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 실증수업을 참관하며 학생 중심·탐구 중심·개념 중심의 IB 교육 철학이 실제 수업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안지훈 교사가 진행한 5학년 대표 수업 'Sharing the Planet -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선택'은 학생들이 생활 속 인권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사회와의 연결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수업 전후에는 사전·사후 협의회도 진행됐다. 참석 교원들은 수업 설계와 실행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나누며 교사 피드백을 실시했다. 또한 타 시도 교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IB 교육과정의 지역별 적용 방안 학습 단위(UOI) 설계 방법, 학교 문화와 리더십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주아중초는 오는 10월 2차 전국 단위 수업공개도 계획하고 있다.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표 수업을 통해 IB PYP의 탐구 중심 수업 사례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감사 대비 업무역량 강화 연수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영재교육원 시청각실에서 관내 사립유치원 원장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사립유치원 감사 대비 업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7~8월 예정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앞두고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해 계약 및 시설공사, 예산 집행 인사·복무 분야 등에서 자주 지적된 사례와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실제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에 도움을 줬다.

또한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공공재정환수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이를 통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관련 제도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전일중학교 일대에서 전주덕진경찰서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소통·협력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전주교육지원청·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청렴 간담회·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공동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행보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청렴 소통 간담회와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존중 캠페인을 잇달아 개최하며 전주교육 발전과 교육공동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먼저 진행된 '너 현장 속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에는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 현안과 교육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참석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학부모 참여 활성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했다. 특히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공동체 간 신뢰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이어 전일중학교 일대에서는 전주덕진경찰서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존중 캠페인이 펼쳐졌다. 캠페인에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과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하얗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학교폭력 STOP! 친구사랑 START!', 함께 웃는 학교 폭력 없는 교실,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일상 속 배려와 존중 문화 실천을 독려했다.

채신영 교육장은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연수, 캠페인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렴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완주지역 청소년들, 싱가포르서 미래산업 체험

완주교육지원청, 성과보고회 열고 해외진로체험 성과 공유... 중 3학생 50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소년 해외진로체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해외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해외진로체험에는 완주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5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를 방문해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안전교육과 함께 4주간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을 이수했으며, 현지에서는 인솔교사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했다.

현지 체험은 미래 핵심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학교(NTU)를 방문해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를 둘러보고 이경진 교수의 특강을 통해 미래 기술 변화와 산업 전망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현대자동차 글로벌혁신센터(HMGIC)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가 접목된 지능형 제조 플랫폼을 직접 살펴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체험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견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학습하고, NPS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적 소통 역량도 키웠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학생들이 체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장을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의 순간을 담은 사진', '10년 뒤에 하고 싶었던 일은 단어와 그 의미'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진로체험이 자신의 진로 설

계와 가치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민 교육장은 "완주 학생들이 아시아의 금융·기술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보고 느낀 경험이 미래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됐을 것"이라며 "올해는 완주군의 예산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완주군과의 교육 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일자리 밖 청년 재도약 돕는다

전주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졸업생·취업준비생 등 실무교육·취업연계

전주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졸업생·취업준비생·취업을 청년(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등 일자리 밖 청년에게 단기 집중교육과 사회진출 지원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약 1년 6개월이며, 전주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실무인재 양성에 나선다.



전주대학교 전경

전주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LLM 응용 AI 기반 산업 AX 실무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 청년들에게 AI 실무교육·기업연계 실습·포트폴리오 제작·취업 및 창업 연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초급·중급·고급 단계 유형으로 운영되며, LLM/Transformer·Prompt Engineering & RAG·LLM 파인튜닝·멀티모달 LLM·LLM 서비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한다. 전북 전략산업의 AI 전환 수요에 맞춰 기업문

서 검색·데이터 리포팅·업무자동화·RAG 기반 질의응답 등 현장형 실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근호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전북 청년에게 실질적인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LLM 응용 AI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 지역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학 협력 기반의 취업연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과 대학모집 사이트를 통해 교육과정 및 참여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북교육청, 완주서 학부모 70여명 대상 연수

내달 11일까지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식생활 교육 및 영양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학생들의 비만과 편식, 영양불균형, 식품알레르기 등 건강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학생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생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완주청의예솔미레공간 꿈이공에서 학부모 7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키 성장과 건강한 부모 되기'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식생활 문제를 이해하고 가정에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뉴트리아이 대표 한영신 박사는 성장기 키 성장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학교 영양상담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를 운영해 영양교사들의 식생활 코칭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연수는 △학생의 성장·발달과 식생활 평가 △비발달과 식생활 △기질과 부모 양육방식 이해 △식생활 상담 실무 시뮬레이션 등 총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영양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영양상담 진단시스템 활용방안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학생 식생활 진단프로그램 활용법과 식사 일기장을 활용한 식습관 코칭, 학생·학부모 상담 기법 등을 안내하며 현장 적용 역량을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교육과 영양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학교·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영양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기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영양, 수면, 운동의 역할을 비롯해 성장기 필수 영양소, 균형 잡힌 식사 방법, 건강한 간식 선택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 활성화를 위해 영양교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7월 11일까지

영양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영양상담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를 운영해 영양교사들의 식생활 코칭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연수는 △학생의 성장·발달과 식생활 평가 △비발달과 식생활 △기질과 부모 양육방식 이해 △식생활 상담 실무 시뮬레이션 등 총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영양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영양상담 진단시스템 활용방안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서는 학생 식생활 진단프로그램 활용법과 식사 일기장을 활용한 식습관 코칭, 학생·학부모 상담 기법 등을 안내하며 현장 적용 역량을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교육과 영양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학교·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영양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2026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지원단과 인권 업무 담당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전북교육청 어울소리오픈트리의 장애인식개선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황태를 변호사가 '인권지원단의 역할과 현장지원 사례 공유'를 주제로 진행하며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황 변호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컨설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인권지원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기구로,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 현장지원과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

/오상근 기자